

전주시,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나서

ICT기술 활용 스스로 도시문제 해결... 원도심 전주형 스마트시티 실증모델·서비스모델 개발

전주시가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무선 네트워크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나선다.

시는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발 앞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보건, 안전, 에너지관리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도 ICT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도시로,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130여 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주)고백기술과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원도심 지역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실증모델 및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및 출입관리,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네트워크, 스마트 △통합관리플랫폼 'Argos' 개발 등이다.

먼저, '스마트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에 센서와 CCTV, LED,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등을 결합해 실외조명 유지 및 전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또, 이러한 스마트가로등과 주차구역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와 공유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마트 주차 및 출입관리' 시스템도 추진된다.

또한, 건물 층별·호수별 에너지 사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7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19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전시장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공유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관리 서비스'와 스마트가로등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해 사용자가 출입현황과 주차현황, 에너지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경우, 무료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전력 사용량 관리로 가

계치를 완화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주차장 정보제공으로 주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재난과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시는 전주민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그간 시민사회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전문가 협의체'를 운

영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

시는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심장대로 조성되는 원도심의 교통과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전동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스마트시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엄마의 밥상'에 후원의 손길 이어져

기와 한정식, 엄마 밥상·지혜 반찬에 1000만원 후원 전북일보 리더스클럽 제2기 원우회원, 200만원 기탁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아침밥을 굶는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와 한정식은 이날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성금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

박진희 기와 한정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리더스클럽 제2기 원우회원 일동도 이날 엄마의 밥상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진 회장은 "다음세대의 리더들로 자라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데 일조하기 원한다"고 후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원조가백 집으로 유명한 영동수퍼(사장 유정석)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계각중에서 보내는 훈훈한 사랑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설령줄 봉사단, 추석 맞이 봉사활동

전북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동아리 설령줄 봉사단은 1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삼성휴먼빌을 방문해 점선교육장 및 원생 생활관 PC 정비 및 수리, 원내 잔디 깎기, 의자 페인트칠, 통학 차량 방역 및 차량 점검,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설령줄 봉사단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전주권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379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4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지원봉사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다.

김종상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감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경찰서, 사랑나눔 자선 바자회 열어

덕진경찰서는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사랑 나눔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경찰서 직원들로부터 기증품을 모집해 정상품의 50%~75% 수준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 전에 기부해 기부문화 확산 및 따뜻한 경찰상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소형 가전제품, 주류, 의류 등 총 300여점의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동네 아이들 성추행 남성 구속

동네 아이들을 성추행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자기에서 B군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C군 등 2명에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먹을 것을 이용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추석 명절자금 700억 펀드

공사대금·보조금 등 조기 집행... 서민경제 안정 등 기대

전주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각종 공사대금과 보조금 등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종 공사 시설비 95억과 민간보조금 51억,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360억, 운영경비 62억원 등 총 700억 원 정도의 보유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중 만기도래 정기예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령,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세입 등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총 730억 원의 집행자금을 마련했다.

시는 또 명절자금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위탁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관급공사 현장 등

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실물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송재욱 전주시 회계과장은 "추석 명절 전 차질 없는 자금집행으로 시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돈 때문에 아들 찌르고 달아난 아버지 검거

돈 때문에 아들을 찌르고 달아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8시 19분경 김제시 금구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들 B(32)씨를 수십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옆구리 등을 찌러 인근 병원

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한 식당에서 A씨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날 A씨는 아들 B씨에게 돈을 달라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속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농동조합